

This text wa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Original text below)

When Spam Becomes Critique:
On Unreadable Words and the Site Where Critique Persists

Yaerin Park (epoché rete)

Some utterances carry meaning simply by arriving. They're less like words (말[言]) and more like horses (말[馬])—emergency alerts, legal notices, protest chants, spam emails. In the early internet, spam emerged not to communicate but to dominate, flooding space with volume, silencing through repetition. Spam doesn't ask for a response. It doesn't try to make meaning. It might dress itself in text, images, videos, or even sleek design, but what it delivers is a neutralized signifier, endlessly sent to whoever's inbox happens to catch it. Regular, automated, accumulating. Even emails we once subscribed to become spam—perhaps because we no longer can or want to respond.

If, as Hito Steyerl suggests, spam is the symptom of “an era that made excess its ideology,” then criticism today may not be so different. Criticism is rarely invited. It risks being unread. The art world filters it like spam, sorting by sender, tone, or keywords. Still, criticism insists. The need to speak what hasn't yet been said continues to multiply it, like spam, and always circles back to the same question: why keep speaking at all?

That question kept haunting me when I started *epoché rete* in 2023 with friends and peers, an art criticism newsletter service that assumed from the start it might not be read. Every issue operated under the logic of excess, surplus, unreadability. Maybe writing unreadable sentences was, in itself, mimicking the structure of spam. Our open rates certainly made it feel that way. And so I kept asking: what happens when criticism starts to resemble spam? Why do I keep writing it anyway?

True to its name, a kind of suspended net, *epoché rete* held space for different motivations. For me, it was about tracking down the source of a feeling that couldn't be said otherwise. Finding a language for critical feeling meant figuring out where I was speaking from. It was, at heart, a matter of affect and existence. And strangely, it was in imagining my own unread messages—in someone else's spam folder—that I most clearly felt the fact of my speaking, my being, as a working-class, cis het Asian woman working in her native Korean tongue. From those discarded messages and leftover phrases, I realized that criticism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read; it insists on being. That realization, I think, was only possible through spam.

The more I thought about it, the more spam felt close to criticism. Both emerge in unreadable, unwanted space. Both sidestep the structures of shared language, persist despite being useless, spread without invitation, and become more about act than content. Criticism often begins in those scattered fragments. In that act of dispersing, of affecting, I saw a strange kinship between spam and critique.

Hito Steyerl said as much. In her 2011 essay “Digital Debris: Spam and Scam,” Hito Steyerl tracks how spam sells the fantasy of neoliberal prosperity—full of promises of youth, beauty, wealth, and success—while quietly unsettling the historical frameworks and power structures

of digital capitalism. She points to the people behind it: the underpaid labor behind spectacle industries: museums, galleries, service work. Spam floods the internet but remains unwanted, excessive, surplus—a voice from and about commodified labor. Like its namesake meat product, spam speaks through and about reified bodies. It's meant to be deleted, but it lingers as 'digital debris,' pushing against the boundaries of what counts as information.

Still, I can't say *epoché rete* fully lived that condition. We began with clear limitations; similar academic backgrounds, ages, races, nationalities, genders. Sometimes our suspensions felt more like evasions. Sometimes delaying judgment looked more like passivity. I sometimes contributed to that too. And those missteps pushed me inward, back into the question of why I write at all. No one has ever replied to our newsletter. So what, really, makes it different from spam?

And yet, I don't conclude that as failure. Spam, like criticism, keeps speaking. It drifts across inboxes, discarded or ignored. Denied meaning, it gives up trying to make any. It just keeps talking, as surplus. Even when it never arrives, or is instantly filtered out, it keeps multiplying elsewhere. And sometimes, despite the filters and deletions, a few make it through. Land in someone's inbox. Get read.

That's where I'll be. Writing one more sentence. Letting it land wherever it lands. Because when spam becomes critique, maybe that's when critique begins again.

스팸은 때때로 비평이 된다: 읽히지 않을 문장들과 비평의 자리

박예린 (에포케 레테)

어떤 말은 도달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말(word)이 아니라 말(horse)에 가깝다. 비상 방송, 법적 고지, 시위 구호, 그리고 스팸 메일이 그렇다. 초기 인터넷 환경에서 스팸은 의미보다 총량으로 발화의 자리를 탈취하고 반복을 통해 상대의 메시지를 침묵시키는 언어적 공격으로서 출현하였다. 그래서 스팸은 애초에 타인과의 소통을 전제하지 않는다. 스팸은 응답을 요청하지 않고, 의미를 생산하려 하지도 않는다.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때로는 현란한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지만, 스팸은 그저 무력화된 기표이다. 그것은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의 메일 주소로 전송될 뿐이다. 너무나 규칙적으로 발송되는 이 기계적인 콘텐츠 서비스. 열어보지 않은 채 쌓여만 가는 메일은 서서히 데이터 공간을 점유하기만 한다. 자진해서 구독했던 메일조차 스팸이 되는 것은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거나,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히토 슈타이얼의 관점대로 “과잉을 하나의 이념으로 삼은 시대”의 징후가 스팸이라면, 나는 오늘날 비평 역시 그것과 유사한 구조적 긴장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비평은 초대 받지 않은 발화이며, 읽히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미술 제도는 보낸 이와 키워드를 참조로 하여 마치 스팸 필터처럼 특정 언어, 관점, 형식으로 쓰인 비평을 선별하고 걸러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 말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충동은 오히려 비평을 스팸처럼 증식시키고, 그것은 중국에는 ‘왜 여전히 말 위에 말을 얹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바로 그 윤리적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2023년 모교의 선후배들과 함께 ‘에포케 레테’라는 이름으로 미술 비평에 관한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매 회차 발송되는 에포케 레테의 뉴스레터는 과잉과 잉여, ‘읽히지 않음’을 전제하며 작동했다. 어쩌면 읽히지 않을 운명을 내포한 문장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스팸의 구조를 반복하고 모방하는 일이기도 했다. 실제로 에포케 레테의 메일 열람 지표는 정말로 ‘스팸’에 가까웠으니 말이다. 그것은 스팸 메일의 형식을 띤 비평이 어떻게 혹은 정말로 어떠한 기능을 할 수는 있는지, 나아가서는 나는 왜 ‘스팸’ 비평글을 쓰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게 했다.

느슨한 연결망을 지향하는 에포케 레테의 이름처럼 모두가 각자가 다른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겠지만, 내가 에포케 레테를 시작한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 막혀 있었을 감각의 근원을 탐색하고 싶어서였다. 비평의 감각 언어를 구성하는 것이 나의 발화 위치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동(affect)과 존재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인의 스팸 메일함 속에서 끝내 열리지 않을 나의 메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스템더 헤테로 노동자 여성으로서 스스로가 존재하며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읽히지 않는 메일, 잔해로 남아버린 문장들 속에서 나는 비평이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닌 ‘존재하기 위한 것’으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스팸의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감정과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팸의 전복성이 비평의 조건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읽히지 않음과 잉여성이라는 조건에서 출현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비평은 스팸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때때로 공동체의 언어 구조에서 벗어나고, 무용하지만 계속해서 생산되고 흠뻑러지며, 언젠가부터는 의미보다 작동으로 존재하는 말들. 비평은 종종 그 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나는 흠뻑러기와 영향(affect)이라는 행위성에서 스팸과 비평이 공유하는 역설적 친연성을 발견했다.

스팸의 전복성은 히토 슈타이얼이 일찍이 언급한 것이기도 했다. 슈타이얼은 「디지털 잔해: 스팸과 스팸 *Digital Debris: Spam and Scam*」 (2011)에서 젊고 아름다운 육체, 경제적 부, 성공 등 신자유주의적 번영을 선전하는 스팸이 어떻게 오늘날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 서술과 권력 체계에 어떻게 교란적·반권력적 행위성을 발휘하는지를 고찰한 바 있다. 슈타이얼이 주목한 것은 스팸의 주체, 객체, 행위가 곧 (미술관과 같은) 스펙터클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스팸은 전 세계 메일의 80%를 차지하는 스팸 메일처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쓸모없고, 성가시며, 잉여적인 존재이자, 과도하게 증식하는 노동자들에 ‘의한’ 발화이다. 또한 고깃덩어리 ‘스팸(SPAM)’과 같이 물화(reification)되는 노동에 ‘대한’ 발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스팸들은

삭제되어야 할 정보의 쓰레기이지만 끝내 “디지털 잔해”로 남은 채, 정보 구조의 경계를 구성하거나 교란하는 언어 행위로 기능한다.

그러나 에포케 레테와 그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스팸의 발화 조건에 완벽하게 닿아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커뮤니티의 한계는 구성원들의 학술적 배경, 연령대, 성별의 동질성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판단을 유예하는 감각은 때때로 회피와 구별되지 않았고, 질문을 지연시키는 태도는 사유를 열어두기보다 무기력하나 나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나 역시 때때로 그 어긋남에 가담했고, 그 틈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에포케 레테의 메일 주소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구조가 답변을 전제하지 않는 무차별적이고 일방향적인 스팸 메일과 무엇이 다른지 여전히 질문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을 완전한 실패라고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비평과 마찬가지로 스팸은 말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에 흩뿌려진 언어의 쓰레기와 잔해로 간주되는 말, 혹은 그런 존재. 그것들은 계속해서 말한다. 의미를 거부당한 문장들은 그 거부를 전제한 채 의미를 생산하려 하지도 않고 단지 잉여로서 발화되고 흩어지기를 선택한다. 설령 도착하지 않더라도, 도달할 수 없더라도 그 말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증식한다. 그렇게, 부지런히 삭제해도 결국 몇몇은 스팸 필터의 틈새를 기어코 빠져나가며 메일함에 도달하고야 만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스팸처럼 남겨진 비평으로 계속해서 말을 덧대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스팸은 때때로 비평이 된다.